

# 고구려어의 귀속과 “중한조기대응어”에 대하여

## 연변대학 이 득 춘

### 1. 고구려어 문제

고구려어 문제에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언어가 같은 말로서 고대 조선반도에서는 방언적 차이는 있었으나 크게 보면 같은 말을 사용했다는 견해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는 서로 다른 언어였다는 견해이다.

첫번째 견해의 학자들은 고조선, 부여, 구려, 진국의 언어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조선의 말은 예족의 말에 기초하였고 부여의 말은 맥족의 한 갈래인 부여족의 말에 기초했으며 구려말은 맥족의 한 갈래인 구려족의 나라의 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예는 맥과 같은 갈래로서 후에 고구려 영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니 그 말은 구려, 고구려와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옥저말은 구려말과 같은 갈래의 말이면서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 일정한 방언적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예족 계통과 부여, 구려의 맥족 계통은 그 말이 같았는데 그것은 고조선말과 부여말, 구려말이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첫번째 견해의 학자들은 진국을 이루고 있던 마한, 진한, 변한의 말은 같은 갈래의 말이면서도 일정한 방언적 차이를 가졌는데 그중 마한말이 진국의 언어를 대표했다고 한다.

마한말과 고조선말, 부여말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 견해의 학자들은 역시 언어 관계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량서》의 다음 구절에 든다.

馬韓有五十四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百濟即其一也。…… 今言語服章略與高麗同， 行不拱張， 拜不申足則異。(《梁書》 百濟傳[卷54])

마한에서 나온 백제말이 고구려말과 같다고 한 것은 결국 진국과 구려가 말이 같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고조선, 부여, 구려, 진국의 언어적 공통성은 이 고대 국가들의 접촉과정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승된 것이며 이 고대 국가들의 구성속에 들어간 고대 종족들의 말이 한 갈래에서 나오는데 기인하고 있는 언어적 공통성”이라고 주장한다.<sup>1</sup>

그러면서 고대 조선 종족들의 언어적 단일성은 그것을 이어받은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도 한 언어의 방언적 여러 갈래였음을 확증해준다고 한다.

한자 문자 생활에 있어서도 이미 고조선시기에 오랜 세기에 걸쳐 이두식표기방

<sup>1</sup> 김영환 《조선어사》(유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 90(2001), 10-13쪽.

식을 모색하고 탐구했으며 고구려에 이르러 다양한 이두식 표기수법과 독특한 표기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고구려에서 이두식 표기방식이 확립된 후 백제와 신라에 전파되어 새로운 발전을 마련하여 나갔다고 한다.<sup>2</sup>

또 일면에서는 신지글자는 조선의 고대문자로서 단군조선시기에 창조되어 고조선 영역에서 조선어를 적는 문자로 널리 사용되었고 그 후 고조선 말기와 발해시기, 고려시기까지 사용되었다고 말한다.<sup>3</sup>

두번째 견해의 학자들은 백제어는 지배족의 부여계의 언어와 피지배족의 한계의 언어로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오늘날 남아있는 백제어의 편린은 이 언어가 신라어와 매우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백제는 풍습과 문화가 고구려와 비슷하였으며 그 말도 고구려와 같았다”(《조선어사》, 15쪽)는 첫 견해의 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견해의 학자들은 “오늘날 남아있는 高句麗語의 片鱗은 그것이 신라어와는 다른 言語였음을 結論케 한다”고 하면서 고구려어와 신라어는 “가까운 친족관계”일 뿐이라고 한다.<sup>4</sup> 그러면서 고구려어는 일본어와 함께 원시 부여계 언어에서 갈라져 나온 반면 신라어는 원시 韓語에서 이어진 것으로 본다. 물론 이 부여계와 한계는 위로 소급하면 부여-한 공통어에서 분파되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고구려가 알타이제어, 그 중에서도 통구스제어와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음을 결론할 수 있다”고 한다.<sup>5</sup>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언어의 단일성”은 통일신라 이후에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중세국어는 신라어를 根幹으로 형성되었”고 오늘의 한국어는 중세한국어의 직접적인 계승이라고 결론짓는다. 바꾸어 말하면 “고구려어가 신라어 또는 중세한국어와 同一한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흥미있는 것은 이런 견해의 학자들은 고구려어는 “신라어와 가까우면서 통구스제어와도 가까운 일면을 보여주며 일본어와도 각별한 친족관계에 있었”으며 “고구려어가 알타이제어와 신라어의 사이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sup>6</sup>

이 부분은 고대 삼국의 언어 관계에 대해서 방언적 차이는 있었어도 단일한 언어관계라고 보는 첫째 견해의 학자들과 아주 팽팽히 맞서는 부분이다. 이들은 고구려어를 백제어 및 신라어와 다른 언어로 인정하면서 위의 논점을 더 발휘하여 다음과 같이 “잃어진 고리”설을 주장한다. “고구려어에 의해서 대표되는 부여계 제 언어--이들이 알타이 제어, 한국어 및 일본어를 연결하는 고리였다”. 즉 “고구려어(부여계 제어)는 신라어(한계언어)와 알타이 제어 사이에 놓인 고리였던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신라어와는 다른 언어였다”고 한다.<sup>7</sup>

<sup>2</sup> 유철 《세 나라시기의 이두에 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년. 15-22쪽.

<sup>3</sup> 김영환 《조선어사》(유학생용), 15-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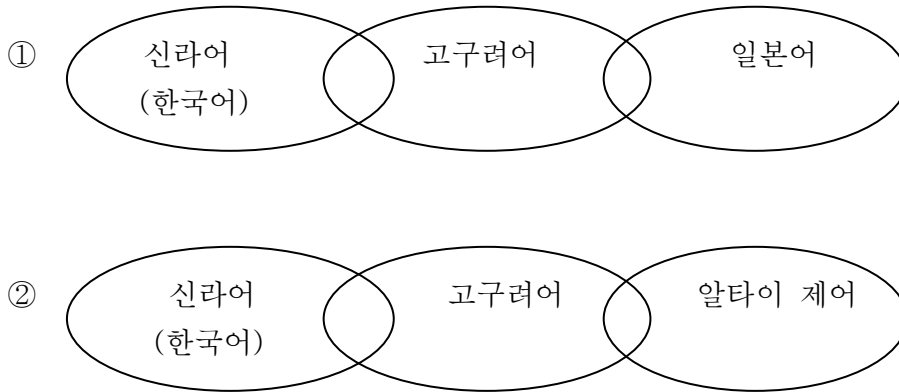
<sup>4</sup> 이기문 신정관 《국어사개설》, 태학사, 2002년, 47쪽; 《한국어형성사》 74-75쪽.

<sup>5</sup> 이기문 《한국어형성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문화사대계V》, 1978년판, 86쪽, 88쪽, 112쪽.

<sup>6</sup> 이기문 신정관 《국어사개설》, 태학사, 2002년판, 47쪽.

<sup>7</sup> 《신동아》, 1973년 1호, 《월간중앙》, 1973년 3호, 김수경 《세나라시기 언어역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고찰》(1989년 평양출판사)에서 재인용.

“잃어진 고리”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이처럼 부여계 제 언어를 계승한 “잃어진 고리” 때문에 오늘날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 일본어의 계통이 잘 해명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의 두가지 견해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만약 북부의 고구려의 언어와 남부의 백제 및 신라의 언어가 서로 달랐다고 한다면 한민족의 성립과 언어의 공통성은 3국 통일 후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것 인즉 과연 한민족의 성립과 언어의 공통성은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는가?

둘째, 고구려어가 신라어와 달랐다면 언어가 민족형성의 중요징표라 할 때 고구려족과 신라족은 언어가 다른 민족(종족)이라고 의논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셋째, 고구려어가 “잃어진 고리”로서 통구스어와는 신라어와 통구스어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중국 북방과 동북지방에 장기간 존재한 숙신어와도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된다. 숙신어(통구스어)와 가까운 언어를 사용한 고구려는 지리상, 역사상 동북지역에 세워졌다 사라진 숙신 후계의 중국 지방정권과 같이 의논할 수 있지 않는가?<sup>8</sup>

오늘 고구려국 귀속 문제가 사학계의 논쟁으로부터 정치, 외교 차원의 논쟁에 과 급되면서 두 나라 국민 감정에 영향주고 있는 현실에서 이상의 문제는 마땅히 중시 하여야 할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잠시 화제를 돌려 두 번째 견해의 학자들이 숙신과 한계와 부여계와의 언어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보기로 한다.

이들은 《三國志》·魏志·東夷傳에서 肅愼의 후예인 挹婁가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이라고 한 기록과 《北史》·勿吉傳의위 “在高句麗北, 言語獨異” 라는

<sup>8</sup> 일본의 河野六郎(1945.1957)은 “고구려어를 비롯한 부여계 제어를 모두 통구스 諸群에 소속시켰다. (이기문 《국어어회사연구》, 동아출판사, 1991년, 300쪽에서 재인용)

기록에 의해 숙신이나 그 뒤를 이은 읍루, 물길, 말갈의 언어가 부여, 고구려, 옥저, 예의 언어와 구별이 있었다고 한다. 숙신을 女眞의 조상 혹은 현대 통구스족의 조상이라 칭하면서 숙신의 언어는 통구스어군에 속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부여 계어는 통구스어와 다르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고구려어와 알타이 제어(특히 통구스 제어)의 관계는 신라어와 알타이 제어의 그것보다 훨씬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 견해로 고구려어를 밝혀보면 고구려어는 통구스어(실지상 만-통구스어를 가리킴)와 가까운 언어적 위치에 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현대 중국 학자들은 통구스어는 중국 북방 (내몽골, 동북)과 러시아 극동 지구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 경내의 에벡키어 (오원커어, 鄂温克语), 오르춘어(鄂伦春语)는 북통구스어군에 속하고 허저어(赫哲語)는 남통구스어군에 속한다고 한다. 통구스어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주어군도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구에서 사용되었는데 만주어는 중국 동북지방에 뿌리 박았었다. 그 이전의 여진어도 마찬가지이다.<sup>9</sup>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와 선비족, 부여, 거란, 숙신과 그 이후의 말갈은 모두 “중국 대가정의 성원”으로서 “中國 中央皇朝의 속국이거나 속부(屬部)이므로 서로 평등적 관계”라고 한다.<sup>10</sup>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高句麗一族本出夫餘，為吾中華民族之一部分，立國于東北疆最久。”(金毓黻 《東北通史》上編，1941年，三台東北大學首印，1944年再版)

○“高句麗顯然屬於典型的中原王朝治下的地方割據政權。”<sup>11</sup>

○“高句麗是中國東北的古代民族，高句麗國家是中國東北歷史上的地方政權。”<sup>12</sup>

○“高句麗民族是中國歷史上的邊疆民族，高句麗國是中國歷史上的邊疆民族政權”<sup>13</sup>

중국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를 놓고 위에서 말한 고구려어 문제 특히 고구려어는 “잃어진 고리”로서 신라어와 다른 언어였다는 견해를 비추어 보면 본의가 아닌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영토도 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에 걸쳐 있었고 그 언어도 동북지방 소수민족 언어와 가까웠던 고구려를 어디에 귀속시켜야 할까? 중한 간의 논쟁에서 이 견해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줘야 할까?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 학자들이 편린적 史籍에 의해 급급히 결론을 내린 결과는 결국 自業自得하고 있지 않나 우려하게 된다. 중국 경내와 반도 북부에 있었던 고구려국에서 사용한, 통구스어와 신라어 사이에서 신라어와 다른 언어였던 고구려어가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 언어로 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설하게 된다. 고구려는 “나라도 중국

<sup>9</sup> D·O·朝克 《滿-通古斯諸語比較研究》民族出版社，1997年.

<sup>10</sup> 厉声、扎文-主编 《高句丽历史问题研究论文集》，延边大学出版社，2005年，213쪽 孙进已、孙弘“高句丽和東北亞各族的关系”

<sup>11</sup> 同8) 92쪽 刘炬 “论中国历史上少数民族政权性质的界定标准”

<sup>12</sup> 同8) 264쪽 耿铁华 “高句丽遗迹列入‘世界文化遗产名录’与高句丽历史归属问题”

<sup>13</sup> 2003年6月24日 《光明日报》“试论高句丽历史研究的几个问题”

의 지방정권이요, 언어도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인 나라로 된다. 한국의 차원에서 보면 “나라도 남의 것이요, 언어도 남의 것”인 격이 된다.

단일어를 주장하는 첫번째 견해를 따르면 고구려어는 반도에 고유한 단일 언어의 일부분이므로 중국 학자들의 지방정권설은 언어의 차원에서는 적어도 납득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 까닭은 설령 지방정권설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고구려국은 중국의 지방정권인데 국어는 반도의 한국어를 사용했하였기”때문이다. 즉 고구려국은 “나라는 중국의 것이었는데 언어는 남의 나라의 것”인 격이 된다. 첫번째 견해는 “나라도 내것이고 언어도 내것”임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3국의 언어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도 종족적인 동질성을 바탕으로 삼국의 一統을 당위의 차원에서 염원하고 추구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암시를 주는 것이다.”<sup>14</sup>

다른 언어였다는 두번째 견해에 따르면 또 고구려는 “한민족의 고대 국가인데 언어는 한국어와 다른 나라”로 된다. 한국의 차원에서는 “나라는 내 것인데 언어는 나와 다른” 나라인 격이 된다.

고구려어 문제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원인은 중한 학자들의 반도의 언어사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며 언어사를 민족의 기원 및 민족사와 통합적이고도 과학적이게 연구하지 못한 결과에 초래된 것이라 일컬이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언어의 시원을 역사-지리적, 인종적, 체질-인류학적, 고고학적, 민속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필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리를 따지면 첫번째 견해는 한국에 알맞은 결론이 되고 두번째 견해는 중국에 알맞은 것으로 된다 어느 것이 옳든 명백한 근거를 해명함이 언어사 연구가와 역사 연구가들의 저버릴 수 없는 의무가 아닐 수 없다.

## 2. 고구려 지명 해독 문제

어느 한 차례 학술회에서 한 역사 학자는 고구려 언어 방면의 연구 성과를 줄곧 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 고구려 문화와 언어의 이중성 및 고구려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sup>15</sup>

작자는 《삼국사기》권제37 잡지 제6 地理4 고구려편(이하 “지리편”이라 약칭)의 지명자료에 의하여 “고구려어휘의 이중성”을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면으로 논증하고 있다.

첫째, “지리편”에는 모두 164조의 고구려 명사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 중에 “중국어 원명”과 고구려어가 대응된 것이 75조, 순 고구려어만 있고 중국어 지명이 대응되지 않은 것이 56개, 중국어 원명만 있는 것이 34개라고 하였다.예:

14 김무림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2004년, 21쪽

15 2003.8 延吉 高句麗·渤海問題學術研討會論文集《高句麗歷史地位及渤海文化構成》, 31 쪽: “如今國內外正在勃發著高句麗研究的熱潮, 人們在紛紛探詢高句麗歷史與文化的各個層面, 卻一直還未見到過有關高句麗語言方面的研究。”

①(병립지명): 水谷城縣 ( 중국어원명 ) --- 買且忽(고구려어)[신라:檀溪縣, 고려:俠溪縣]

②(고구려어만 기록한 것): 達乙省縣 [신라: 高峰縣, 고려:高峰縣]

③(중국어만 기록한 것): 首尔忽[신라:戌城縣, 고려:守安縣]

“지리편”의 병립지명과 무대응 지명 총 239개 중 순 중국어 지명이 114개, 순 고구려 지명이 82개, 고구려어와 중국어 복합지명이 44개라고 통계하고 중국어와 중국어 복합지명이 65.6%(157개)로서 고구려 지명어에서 뚜렷한 우세를 점하고 주도적 지위를 점한다고 하였다.

둘째, 중국관수정사(中國官修正史)의 31개 지명과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타나는 40개 지명 중 순 중국어지명은 42개인데 반하여 순 고구려어는 8개 뿐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중국어 지명이 뚜렷한 우세를 점하고 주도적 지위에 있다고 했다.

셋째,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기재된 28대의 王名과 그 謚号에 모두 56개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 28개 시호는 몽땅 중국어 어휘이고 28개 王名 중 7개만 중국어어휘인데 중국어 어휘 도합 35개는 62.5%를 점한다고 하면서 고구려 어휘는 “중국어 어휘를的主导로 하고 고구려 민족어휘를 겸용하는 이중성”을 띠었다고 한다.

넷째, 中外 역사 문헌과 조선 고적 중의 관직명 60 여개를 고찰하고 그중의 중국어 어휘와 고구려 어휘의 비중은 2대 1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작자는 “지리편”의 3중 지명(순 중국어, 순 고구려어, 복합어) 은 쟁론할 여지 없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사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한다.

“那些純高句麗語的地名表明,這些地區是高句麗族人傳統的居住地區,這種地區在當年高句麗王國在朝鮮半島的領域中大約只占三分之一.那些純漢語地名則表明,這些地方是自箕氏朝鮮、衛氏朝鮮乃至‘漢四郡’以來漢族居民傳統的居住地區,在當年高句麗王國在朝鮮半島的領域中約占半數。而漢語和高句麗語複合地名則表明,這些地方是漢族和高句麗族兩個民族混居的地區,很有可能先是漢族人居住,所以才有漢語地名,隨後高句麗族人陸續入居,於是又有了對應的高句麗語地名,這種地區在當年高句麗王國在朝鮮半島的領域中約占半數稍弱。”

이렇게 반도 내 중국인의 전통적 거주지역과 고구려 두 민족과의 혼거지역이 반도 내의 고구려 지역의 다수 지역이라고 하면서 당년의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 영토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다수 지방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논문은 “지리편”을 통한 고구려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인식”을 도출하였다고 지적한다.

첫째, 대개 고구려는 고구려 민족어와 중국어의 이중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작자는 이는 21세기 현재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같은 集聚居지구의 주민들이 민족어(한국어/조선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것 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둘째, 고구려는 한자를 직접 쓰면서 동시에 한자로 고구려어의 어음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자를 표음부호로 사용하였다.

셋째, 고구려 문화는 고대 중국 경외의 일종 문화가 아니라 고대 중국 경내의 일종 소수 민족 문화이다.

넷째, “지리편”의 지명은 고구려 왕국은 역대 중국 중원왕조의 有效 행정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구획임을 말해준다.

작자가 이러한 4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한마디로 “지리편”, 고구려본기 그리고 중국官修正史의 인명, 지명, 관명이 보여주는 “고구려어휘의 이중성”이다. “언어의 이중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입각했음을 말하였다.

①고구려에서 한족(漢族)의 전통 거주지역과 고한(高漢) 混居지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②混居지역에서 漢族이 먼저 거주하고 그후 고구려족이 입거(入居)하였다.

③이러한 인구 및 지역 관계로 고구려족은 고구려어와 중국어의 이중 언어 생활을 하였다.

이상의 논점들은 작자의 연구결과로서 역사자료에 의하여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은 꼭 토론해 보아야 한다.

첫째, 병기된 지명을 해독하는데 있어서 원칙적 분규가 있다. 논문은 병기된 것 중 전자는 “중국어(漢語)”로 보고 대응된 후자만이 고구려어라고 한다. 논문은 고구려인 독거지역과 혼거지역을 나누고 고구려족과 중국인의 혼거지역에서는 중국어지명이 먼저 있고 이에 따라 고구려 지명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리하여 전자를 “原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 권37의 “南川縣-云南買”에 대하여 작자는 “南川”은 원칙 중국어 지명으로 긍정하고 “南買”는 고구려어 지명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유철선생은 “南川”은 “구리마”(고구려어)에 대한 석독이고 “南買”는 “구리마”에 대한 음독이라고 한다. 권35 잡지4 지리2의 “蒜山縣本高句麗買尸達縣”, “峯城縣本高句麗述尔忽縣”에서도 작자는 “買尸達”과 “述尔忽”은 고구려어로 보고 “蒜山”과 “峯城”은 신라시기 원칙 중국어명으로 인정하고 있다.<sup>16</sup> 김영환선생은 이 단어의 병기 관계를 음독과 석독의 관계로 보았고 유철선생은 “마시다라/마리다라”와 “수리구루”에 대한 음독과 석독의 관계로 보았다. 그리고 이기문선생은 “마늘”、“수늬”에 대한 음독과 석독으로 보았다.<sup>17</sup>

이처럼 병기 지명에 대하여 고구려어와 원칙 중국어의 “이중성”으로 논하는 학자와 음독과 석독의 대등관계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다음과 같은 부동한 견해를 형성한다.

①중국어명 (漢語 原稱) → 고구려어명

②고구려어명(음독) ⇔ 고구려어명(석독),

<sup>16</sup> 이기문은 ‘고구려의 언어와 그 특징’ (1968)에서 “삼국사기” 권 37의 지명은 동일지명에 대한 相異한 두 표기로서 음독과 석독의 대응으로 보면서 경덕왕 16년 군현명을 漢式化한 것은 종래의 석독명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면서 音讀劃一化는 이로부터 이후의 일이라고 하였다. “국어사개설”(2002)에서 “삼국사기” 권 35의 “水城”은 한자명이고 권 37의 “水城”은 석독표기라고 하였다. (買忽—云水城[卷37].水城郡本高句麗買忽郡景德王改名今水洲[卷35])

<sup>17</sup> 김영환 《조선어사》, 유철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이기문 《한국어형성사》.

고구려어명(석독)⇔고구려어명(음독)

③ 한자명(음독)⇔고구려어명(석독)

둘째, 논문은 고구려족이 高漢이중어를 사용하였다고 역설하고 오늘의 연변 조선족이 중한 이중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는 너무도 비약적인 결론이다. 이중언어 사용이 노예제 사회가 붕괴되고 봉건사회가 일어나던 시기에 벌써 발달한 현대 사회처럼 이행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잘 연구되어야 할 과제다. 논문은 또한 고구려에서 한자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민족의 언어와 그가 사용하는 문자는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자를 썼다 해도 그 사용방법은 중국과 다른 특유한 방법이었다.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여러 민족이 동일한 문자를 쓰는 현상은 오늘도 그리 보기 힘든 일이 아니다. 한자 사용과 이중언어 생활은 다른 개념이다.

셋째, 논문이 내놓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한 가지가 고구려 지명, 인명, 관직명을 통해 추출한 “高句麗語音漢字標音總表”인데 표에서 한자의 표음은 현대 중국어 병음에 의하였다. 즉 현대중국어로 지명을 해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명 해독 어음 원칙에 대한 학계의 견해를 먼저 일별해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다.

①고대 한자음의 재구에서 한자음은 역사를 따라 변했음과 아울러 그 수입초기에 중국음에 대한 모방을 떠날 수 없었고 한국한자음이 확립된 이후에도 중국운서의 규범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관련하여 다른 고대 중국음과 현대 중국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②한자 수용 초기부터 고대 중국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민족언어의 어음체계에 맞게 소화시켜 수용하고 그 후 점차 자체의 한자음을 확립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자음도 고유어 어음체계의 견제속에서 민족어의 어음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③조선 한자음이 상고나 중고 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중국 고대음을 참고하는 것은 고구려어 연구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 고대음 추정에서 칼그렌과 일부 중국 학자들은 한국음을 그 근거로 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그 추정한 음을 가지고 다시 한국 한자 고대음을 추정하는 방법은 기계적이고도 인위적인 방법이다. 또 이렇게 추정하낸 한국 고대음을 또다시 중국어 고대음 추정에 사용함도 비과학적이다. 이런 귀환적 방법은 올바른 연구 방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논문은 이상의 어느 원칙도 언급함이 없이 오직 현대 병음으로 고대 성모의 음을 제시했고 또 이러한 안광으로 “지리편”과 기타 자료들을 고찰한 것 같다. 필자의 나름대로 지명 해독에서의 현대 병음의 부당성을 예를 들어 지적해 보려 한다.

현대 중국어 성모 중의 j q x 에 대해서만 말해 보려 한다. 현대 한어의 j[tɕ] q[tɕʰ] x[ç](지, 치, 시)는 고대의 見조와 精조의 성모로부터 변화된 것이다. 이 두 조의 한자는 《중원음운》(1324년)에 이르러 탁음성모의 소실로 인하여 見溪曉와 精淸心 6개 자모만 남게 되었다. 원래 이 두 조의 성모들은 발음부위가 서로 가깝지 않았



지만 舌面前元音 [i] [y]앞에 위치하였을 때 함께 j[tɕ] q[tɕʰ] x[ç] 로 변화였다.  
예:

見조: (불변자) 歌(ge) 開(kai) 海(hai)

(변화자) 基(ji) 啓(qi) 希(xi)

精조: (불변자) 早(zao) 草(cao) 掃(sao)

(변화자) 濟(ji) 妻(qi) 西(xi)

이런 결과로 중국어에서는 “基”과 “濟”, “啓”과 “妻”, “希”과 “西”자가 같은 음으로 되어 버렸다.

그러나 한국어는 고대나 현대나 이러한 변화를 하지 않고 의연히 중국 고대 성모처럼 見조와 精조의 자들은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중국어 병음으로 고구려 지명을 발음할 경우 당시의 중국음이나 한국음과는 큰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논문에서 같은 舌面前聲母에 넣은 다음과 같은 글자는 한국어에서 두가지 이상으로 나누어 진다.

j: ㄱ: 加 甲 介 今 及 皆 巨 句 贾 交 近 竟

ㅈ: 积 津 祭

ㅎ: 迴 解

q: ㄱ: 屈 去 丘 求 奇 歧 钳

ㅈ: 齐 (切, 且)

ㅈ: 且 切

x: ㅎ: 兮 闲 恤 狭 谐 兄

ㅅ: 习 悉 息 薪 相 须 小

ㅇ: 熊

보다시피 병음으로 하면 한국음과도 다르고 중국고대음과도 달라진다. 이번에는 문장에 제기된 지명의 음을 보기로 하자.

皆次丁 (사기권37) [한국음] 개차 [유렬] 가시

[병음] jieci

[중국고음] [keits'iei]

今達 (권37) [한국음] 금달 [유렬] (今>乃) 나다라

[병음] jinda

[중국고음] [kiəmdat] 혹은 [nədat](>乃)

麻耕伊 (권37) [한국음] 마경이 [유렬] 마가리

[병음] magengyi

[중국상고음] [makeŋiei]

屈火 (권35) [한국음] 굴화 [유렬] 구루부루

[병음] quhuo

[중국고음] [k'iwətxuəi]

작자는 복합지명을 지정하는데도 불투명성을 보이고 있다. 복합지명 중 어느 것이 중국어 성분이고 어느 것이 고구려어 성분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은 아무리 고찰해도 고구려어 성분만으로 된 것 같다.

今勿内郡 (권37) : [유렬] 거무나(음독), [이기문] 검내 (음독)

伐力川縣: 바라마(음석독), 푸르매 (음석독)

沙熱伊縣: 사나리(음독), 서늘이(음독)

買谷縣: 마다나 (음석독), 매단(음석독)

古斯馬縣: 고시마라 (음석독), 구슬마(음독)

伊伐支縣: 이바라기(음독), 이웃(음독)<sup>18</sup>

작자가 복합지명이라고 말하는 44개 단어중 이상과 같이 복합지명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다수이다. 이것들을 병음으로 읽으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다. 병음으로 고구려 지명을 해독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한자음의 역사적 변천을 고려하면서 해독할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sup>19</sup>

삼국사기 권 35에서는 “赤城縣本高麗沙伏忽，景德王改名，今陽城縣”이라 나오고 권 37에는 “赤木縣一云沙非斤乙”이라고 나온다. “赤”에 “沙非”와 “沙伏”이 꼭 같이 대응된다. 여기서 8세기 경덕왕 개명 이전 《사비》와 《사복》이 통용된 것은 종성이 산생되지 않은 한국어 역사와 관련된다. 권35에서는 “習谿本高句麗習比谷縣，景德王改名，今歙谷縣”이라 나오고 권 37에서는 “習比谷(一作吞)”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 “習比吞”, “習比谷”은 모두 “시비다나”(혹 “서비단”)에 대한 옮김이다. “谿”(“시내” 또는 “골짜기”의 뜻)는 “吞”, “谷”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여기서 경덕왕이 종성을 무시하던 옛이름 “習比(서비)”를 “習” 한 글자로 고친 것은 “서비”의 “비”가 종성으로 변해서 “섭(習)”의 종성으로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8세기 후반기에는 종성이 표기되고 폐음절의 존재가 인정된 것을 말해준다. 이 단어가 3음절로부터 2음절로 된 과정도 홀시해서는 안된다. 고구려지명 “習比吞”을 중국어 지명 “習谿”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위의 설명과 같이 한국어 자체의 어음변화의 반영인지를 과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 작자가 고구려어에 대등하게 대응된 단어와 고구려어 무대응 단어를 모두 중국어 단어라고 하는데 대하여 종전의 견해대로 고찰하면 부당하지만 논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왜냐 하면 “고구려가 그 넓은 판도 안에서 언어적 통일을 성취했는지의 여부도 판단할 길이 없”고 “고구려는 복수의 언어를 가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sup>20</sup>

### 3. 중한 조기 대응어 문제.

<sup>18</sup> 郭錫良 《漢字古音手冊》，北京大學出版社，1986年. 조선과학원고전연구소 《세옥편》，(평양) 과학원출판사，1963. 유렬 《세나라 시기의 이두에 대한 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3년. 이기문의 해독은 《한국어형성사》와 《국어사개설》에 의해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sup>19</sup> 김영환 《조선어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2001년

<sup>20</sup> 이기문 《국어어휘사연구》，동아출판사，1991년，311쪽

최근 년간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어원을 찾는 논문이거나 이른바 중한 조기 대응어(早期對對應語)를 연구하는 논문들을 심심 찡게 볼 수 있다. 그 중 한 논문을 예를 들면서 분석해 보려 한다.<sup>21</sup>

논문은 첫 머리에서 “(한국)고유어와 중국어가 더욱 고대적인 음운과 뜻의 대응 관계가 있음에 대해 응당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하는바 이런 것들은 두 언어지간의 껍 이르고 깊은 관계를 반영해준다”고 쓰고 있다. 이런 글들은 흔히 《설문해자》 시대의 해성(諧聲)자와 재구된 중국 고대음을 채용하여 한국의 단어들을 비교한다. 논문의 내용을 필자가 요약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皮”자 관계 단어 중한 대응표

	한자	뜻	중국어 상고음 <sup>22</sup>	한국어
①	皮	剥, 離	bjar [bral]	바리다>바르다
②	披	分, 裂	bjiar [phral]	벌다
③	披	張	Phiar[phral]	버리다>벌리다
④	披	散, 解	Phiral [phral]	풀다
⑤	鞞	张羽	phjiar [phral]	버리다>펼치다
⑥	椀	折	pjiarx (phral?)	부러지다
⑦	耒	耕, 開	phjiar (phral)	풀다
⑧	旃	散	bjiarh (brals)	뿔뿔이, 풀풀, (물)보라
⑨	鞞	屈曲	mjiarx (mbral?)	구불다, 모루(?)
⑩	被	衾	bjiarh (brals)	니불>이불
⑪	鉞	針	phjiar (phral)	바랄>바늘
⑫	帔	裙	phjiar (phral)	보로(치마)
⑬	諛	谄	pjiarh (prals)	빌붙다, 붙다
⑭	疲	瘦	bjiar (bral)	비리비리하다 파리하다

논문은 이처럼 “皮”聲符자들의 고대음이 한국어와 대응을 이룬다고 보면서 중국어의 [p]와 한국어의 “ㅍ”, [ph]와 “ㅍ,ㅍ”, [b]와“ㅂ,ㅍ”, [m]와“ㅂ,ㅍ”성모가 어두에서 대응되고 어말에서 [r],[l]가 “ㄹ”과 대응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국어

<sup>21</sup> 民族语文, 2006年第二期

<sup>22</sup> 李方桂 《上古音研究》商务印书馆, 2001年. () 속의 것은 郑张尚芳(《上古音系》, 上海世纪出版集团, 上海教育出版社, 2003年)의 재구음이다.

성모의 기본어음형식은 “ㅂ-ㄹ-ㄹ”[p-r-l](바를)바늘)이고 “ㅂ-ㄹ-“, [p-r- ](버리다)나 “ㅂ-ㄹ” [p-l](벌다) 형식은 “ㄹ”이 탈락한 후의 형태라 한다. 논문은 박병채의 《국어발달사》(147 쪽)를 인용하여 한국어에서 “ㄹ”운미의 탈락은 역사상 광범히 있었던 것이라 한다. 결국 “皮”성부자의 중국 고대 성모는 [bjar]혹은 [bral]에서처럼 [b-r] 혹은 [br-l]형태인데 한국어는 이와 대응된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대응하여 음절말음 [l] 혹은 [r]을 “바를”(针)처럼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ㄹ]받침이 탈락되는 법칙에 의해 [버리~] [파리~] [바르~]와 같은 받침이 없는 형태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논문은 皮聲符한자와 한국어의 도표에서와 같은 단어들이 하나의 단어군 (词汇群)을 이루어 대응된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皮”聲符字에 대응하여 한국어의 “바르다. 벌다. 버리다, 풀다. 펼치다, 부러지다, 빨빨이, 풀풀, 보라, 구불다, 이불, 보로, 모루(?), 빌붙다, 바늘, 붙다. 비리비리하다, 파리하다”등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가 어근을 같이하는 동족어거나 기원을 같이하는 친족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친척어에 속할 수 있는가?<sup>23</sup> 이는 연구해야 할 과제로서 논문에서처럼 그렇게 간단히 결론 지을 수 없다.

논문에서는 李方桂 재구음 중의 모음 [i] 혹은 [ji]가 어떻게 되어 한국어에 와서는 대응되는 개음이 없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郑张尚芳 재구음의 복자음이 한국어에 와서는 [r]이 소실되거나 또는 두 자음 사이에 모음을 첨가한 것으로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 고대음의 어간 모음 [a]도 무엇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무질서하게 [a],[ʌ],[ɚ],[i],[u],[o],[i]로 대응되었는지 알기 어렵다.<sup>24</sup>

비교언어학이란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와의 비교연구를 뜻한다. 이것은 비친족관계의 언어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비친족어 사이의 관계는 친족어 사이의 관계와 다르다. 예를 들어 비친족관계 언어간의 문법관계에 설사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역사적 발전,변화의 내재적 연계는 있을 수 없다. 중국-티베트제 언어 중의 티베트-버마어가 비록 알타이어처럼 ov형 어순이어서 류형이 같다하

<sup>23</sup> 리동빈 《조선어단어분화연구》, 서울 역락, 2003년, 5쪽

<sup>24</sup> 王力的 “同源字典”에 의하면 皮被의 음을 [biai], 披旆의 음은 [phiai]이다. 어중이나 어말에 자음이 없다, 한국어와 대응 안됨을 나타낸다.

여도 그들 사이에 역사적 발전, 변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논문은 한국어의 계통을 중국어에 연계시키려 하므로 마땅히 비교언어학의 기본 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어의 비교연구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응이 성립되어야 한다. 음운과 의미의 대응에서 특히 음운대응에서는 단순한 외형의 유사함에 미혹되는 것은 금물인바 어디까지나 엄밀한 음운규칙이 성립되어야 한다. 특히 문헌 이전의 언어 상태를 재구해야 한다. 두 언어 어음체계의 대응형태를 재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은 皮聲符字들과 한국어에서 어음 혹은 의미가 상사한 단어들을 문헌적 고증도 없이 대응시켰다.

정말로 표의문자인 한자의 하나의 성부자들에 유형학적으로 언어구조가 다른 한국어 어휘가 아주 쉽게 무더기로 대응된다면 좀 의심스러움을 면치 못한다. [bjar] (bral)(皮)와 그리고 [mjiaɾx](𧄸), [bjiaɾh](被)와의 어음적 유사성도 없는 “구불다”, “이불”의 어중음절 “불”을 어떻게 聲符字 “被”, “𧄸”의 어두자음[m],[b]와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필자의 생각에는 “구불다”는 “굽다”와 관련이 있으며 이 단어의 어근에 역사상 “을”이라는 접사가 붙어 “굽+을다”로 된것으로 보게 되는데 유사한 것으로 “굽+을하다(구붓하다)를 들 수 있다. “굽-”에 유래한 단어는 많다. “구부정하다. 구부리다. 구부스름하다, 구부정하다, 구불거리다, 구불구불”과 같은 단어의 핵은 “굽”이며 “불”이 아니다. “굽실거리다, 굽어보다, 굽이, 굽적거리다, 굽히다, 굽어들다”등 단어들도 그러한 것을 말해준다. “이불”의 “불”도 원형이 아니다. “넙다”의 어간 “넙”에 “을”이 붙어 “넙+을>니블>이불”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문에서 박병채(1996)의 한 단락을 중국어 皮성부자의 [r(l)]이 한국어에 이르러 탈락되는 증거로 삼았는데 이는 꼭 필수적인 규칙이 아님을 저자가 같은 책에서 이미 밝혔고 같은 음운조건에서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방언에 따라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것임을 밝혔다.<sup>25</sup>

중세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을 상고에 일률적으로 있는 현상으로 논단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필요를 느낀다. 논문은 “바를”이 “바늘”로 변했다 하면서 “바를”이 한국어 대응어의 기본 어음형식(p-r-l)이라고 하고 기타의 한국어 대응어는 [-l] 이 탈락한 것이라 했는데 그 과정을 논증하지 않았다. “바늘”은 이미 “용비어천가”, “두시언해(초간)”, “牧牛子修心訣”, “법화경언해”, “원각경언해” 등 15 세기 문헌에 광범히 나오지만 “바를”은 근대의 “馬經抄集언해”(1682)에 나오고 있다.<sup>26</sup> 과연 “바를”이 변하여 “바늘”이 되었다고

<sup>25</sup>戴庆夏,金海月 “有关非亲属语言语法比较的一些方法论问题”, 汉韩与语言对比国际学术研讨会论文,2006.8.23

박병채 “국어발달사”, 世英社, 2004년판 147쪽

<sup>26</sup> 남광우 《고어사전》 一潮閣 1971년, 김영환 《중세조선말사전》(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p-r-l” 공식은 응당 “p-n-l”로 되어야 한다. 그러면 논문의 논제를 증명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된다.

논문은 “葉”성부자도 한국어와 대응시켰다. “皮”자와 마찬가지로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중국어 추정음과 15세기 내지 현대 한국어 단어를 대응시키고 있다. 李芳桂의 추정음과 논문이 대응시킨 한국어 단어를 보기로 하자.

蝶[diap] : 나비	鱗[diap]: 넙치
喋[diap] :나불거리다	諜 [diap] : 나부시
(簾)[rap] :나비치다	葉 [rap] : 납작하다
喋[drap] :납작거리다	儻 [rap] :가볍다
牒[rap] :잎(口 )	葉 [rap] : 잎(草)
牒[hiap] : -랍시고/-답시고	

논문은 “葉” 관련자들은 고대 定母와 以母의 자들이라고 하면서 중국어 상고에 [diap]([rap])으로 재구되는데 대응되는 한국어는 어두 자음이 [r], [n],[j(y,i)]등 3가지로 된다고 했다. “皮”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두 언어의 고대 어음체계 대응관계를 재구함이 없이 중국어의 상고와 한국어의 중세나 현대를 대비하였는데 건강부회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찌하여 중국어 [diap] 중의 [d]가 한국어의 [n]가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어 유감이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r>n>∅(탈락)의 음운변화가 있어서 [rap]중의 [r]이 [n]내지 [∅]로 되었다고 했다. 중국어 [rap] 중의 [r]이 한국어에서 [n]이 되고 [n]이 다시[∅]로 되었다는 것은 상고에 두음법칙이 작용했음을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

위에 대응시킨 단어들은 이미 15세기 이전에 “ㄹ>ㄴ”의 두음법칙을 완성하였다는 뜻이 된다. 기실 그것이 가능했을까 토의되어야 한다. 그보다 앞서 이런 단어들이 고대에 꼭 “ㄹ”로 어두자음이 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역시 알기 어렵다. 만약 고대 한국어에 “ㄴ”이 없었다면 후기의 “ㄴ”이 “ㄹ”에서 왔다는 추정을 할 수 있겠으나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였었다.

이른바 두음법칙은 알타이계 언어들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 음운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까지만도 이러한 두음법칙이 표기상으로 고정되지 않고 있다. 고유어나 한자어에서 “ㄹ”, “ㄴ”이 어두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ㄴ”의 경우 “ㄴ”와 “ㅇ”은 의미분화의 기준이 되고 있다. (례: 여름(實) -녀름(夏), 입(口) -넙(叶), 일다(成) -닐다(走)). 보건대 두음법칙은 대체로 중세 혹은 18세기 이후부터 지켜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1993년, 유창돈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1990년, 홍윤표 등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1995년

여기서 특히 유감스럽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어의 “-랍시고”, “-답시고”를 “瞞”[hiap]와 대응시킨 것이다. “瞞”(접)이 “轻视”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랍/-답”이 “轻, 扁”의 뜻을 나타낸다고 했다.

“-랍시고”나 “-답시고”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의 합성이음토이다. 토와 상고중국어 단어가 정말로 대응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고증을 거쳐야 할 것이며 큰 발견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논문은 다음과 같이 썼다.

**-랍시고(-답시고): 연결어미**

**시: 한자 접사 “视”(필자주:실지상 어간의 조성부분으로 보았다)**

**-고: 연결어미**

**랍: “轻, 扁”의 의미(필자주:실지상 어근으로 본것과 같다)**

“-랍시고”(“라+ㅂ시고”)는 분명히 “라고 합시고”가 줄어든 것이며 “-답시고”(“다+ㅂ시고”)는 《다고 합시고》의 준 형태이다. 부디 이 복합토에서 사라진 어근 형태를 찾는다면 《하-》밖에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대응은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존경어미 “-시”를 한자 “视”에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부적당한 추정에 불과하다.

지금껏 토론한 바와 같이 논문의 논증과정은 계속 논의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논문은 마지막으로 이상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 못한 한국어 계통설에 새로운 탐색의 思路를 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다.

“朝鮮語與漢語對應詞可能反映朝、漢語早期的關係。這一領域的研究對語言學界一直未能解決的‘朝鮮語系屬’問題將提出一個新的探索思路”

고구려어 문제, 고구려 지명 해독 문제, 중한 조기대응어 문제가 역사학계의 고구려국 귀속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 특히 중한 조기대응어문제는 알타이 가설에 대한 새로운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계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한 학계간의 논쟁을 해소하는데 대단히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6.8.28)